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일차적 관동맥 스텐트 시술의 초기 및 중장기 성적

포천 중문의대 분당차병원 심도자실

최준석, 이선화, 엄재철, 조성용

목 적 :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폐쇄된 혈관을 조기에 완전하게 개통, 유지시켜 주는 것은 손상된 심근을 구조하고 생존율을 개선시켜 주는데 매우 중요하다. 혈전 용해제가 사용되어 왔으나 재관류율이 낮고 드물지만 치명적인 출혈의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에서 일차적 관동맥 스텐트 시술은 재협착을 감소시키고 초기 및 후기의 임상적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 본 병원에서는 1995년 개원이래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일차적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의 초기 및 중장기 추적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1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일차적 관동맥 스텐트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 받은 137예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37예의 환자에서 196개의 스텐트(평균직경 3.12 ± 0.44 mm)가 삽입되었다. 대상환자의 평균연령은 59 ± 12 세, 남자 96예(70%), 여자 41예(30%)였으며, 위험인자는 흡연 69예(50%), 고혈압 63예(46%), 고지혈증 19예(14%), 당뇨 38예(28%), 가족력 6예(4%)였다.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내원까지 평균 217 ± 334 분이 소요되었으며, 응급실 내원 후 표적 병소에 시술을 시행할 때까지 시간(from door to stent)은 평균 295 ± 392 분이었다. 관동맥 조영술상 경색 관련 동맥의 분포는 좌전하행지 91개(43%), 좌회선지 52개(24.5%), 우관동맥 69개(32.5%)였고, TIMI 0 39예(28%), TIMI 1 98예(72%)였다

결 과 : 137예의 환자 중 6개월 후 추적 관동맥 조영술은 84예(61%)에서 시행되었으며 이중 50% 이상의 스텐트내 재협착을 보인 예는 27예(32.1%)로, 그중 26예(96.3%)는 관동맥 성형술을, 1예(3.7%)는 관동맥 우회로 수술을 시행받았다. 1년 이상 임상적인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127예의 경우 In hospital MACE(major adverse cardiac events)는 사망 1예(0.7%), 재경색 0예, 표적 병변 재관류 5예(3.6%)였고, 1 year MACE는 사망 1예(0.7%), 재경색 0예, 표적 병변 재관류 27예(21%)였다

결 론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들에 있어서 일차적 관동맥 스텐트 시술은 안전하고 우수한 초기 및 중장기 성적을 보였다.